

탈핵을 지향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기도역음: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JPIC
사진: 장영식 (라파엘로)
<출처: 탈핵신문 포토에세이>

시작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의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탈핵 세상을 지향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신명 30,19)

제1차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핵발전의 위험>

하느님 보시기 좋게 창조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하느님 정원의 모든 생명을 향해 누구도 폭력을 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핵발전소에서,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핵사고가 일어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의 핵발전소 폭발은 인류를 충격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불과 60여년 만에 벌어진 이 핵사고들은 인간이 자연과 모든 생명에 가한 폭력이었으며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긴 몹쓸 짓입니다.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2-13P참조)

생명이신 하느님,

핵발전의 위험을 무시한 인류는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으며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닥쳐올 위험을 직시하고 저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탈핵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반대>

현재(2023년 6월 기준) 국내의 핵발전소는 25기가 가동 중입니다. 그 중 울진의 한울 및 신한울 핵발전소에는 이미 8기가 있으나, 추가로 2기(신한울 3,4호기)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단위 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핵발전소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¹⁾

사랑이신 하느님,

더 이상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무시한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는 것임을 깨닫게하시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용기를 주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1) <http://kfem.or.kr/?p=232067>

제3차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핵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방사능 내부 피폭>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사능의 내부 피폭으로 인해 각종 암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23.6.8)에 따르면 월성 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검사 결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서는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은 양의 피폭으로도 암과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핵발전과 방사능 피해의 진실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²⁾

보호자이신 하느님,

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내부 피폭된 채 지금도 몸속에 방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주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2)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energy-conversion/nuclear/102475/>

제4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처리가 불가능한 핵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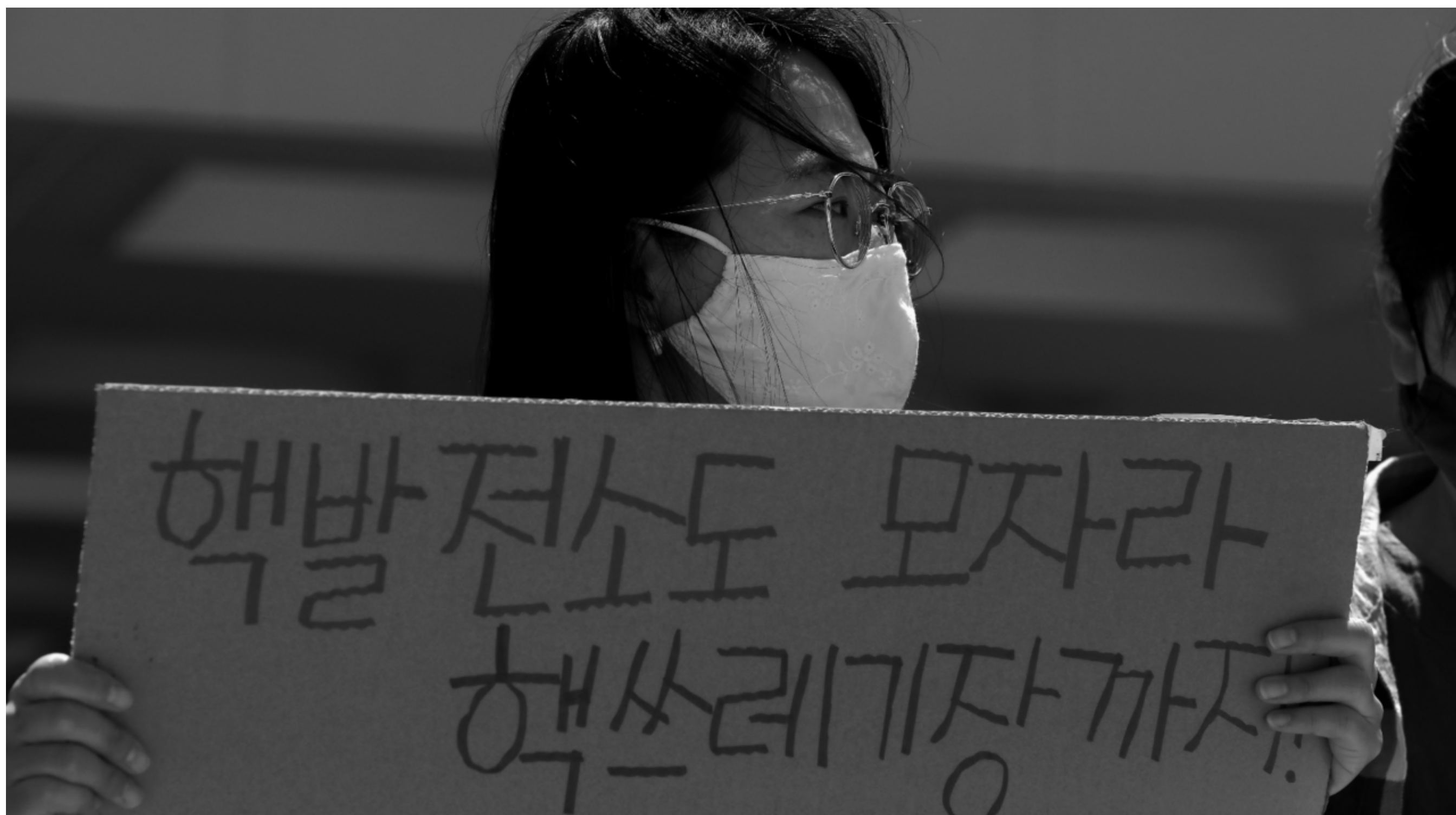
핵발전소는 가동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쓰레기를 발생시킵니다. 핵폐기물은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쓰레기가 아니며, 소각과 매립 및 방류의 방법으로 자연에 무해하게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극소량만으로도 자연 방사성 물질과 달리 유전자 물질인 DNA를 교란하고 손상시킴으로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고통을 줍니다.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59P 참조)

사랑의 하느님,

저희가 못 생명의 아픔을 품어 안으시는 성모님을 닮아 생명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도 계획도 없는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핵 발전을 중단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5차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길을 묵상합니다.

十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탈핵 활동가들을 위하여>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저지, 핵발전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보상, 핵발전과 폐기물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알리고자 거대한 카르텔과 싸우는 탈핵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탈핵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의 변호사들과 오늘도 최전선의 현장에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을 기억합니다.

위로의 하느님,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도운 시몬처럼 탈핵의 길을 걷는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6차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헌법소원 청구 >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의 핵발전소 사고로 지금도 핵연료의 냉각을 위해 파손된 원자로 내부로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아내린 핵연료와 뒤섞인 물인 오염수가 '23년 8월부터 태평양 바다에 버려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녀, 어민, 일반 시민 등 4만명과 생태계 대표로 한반도 지역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가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치유자이신 하느님,
바다를 터전삼아 살아가는 이들은 물론
바닷속 생명들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될 수 있도록,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통당하는
모든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7차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반대>

설계 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사고와 고장 확률이 높아 위험성이 더 커 집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핵진흥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고리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까지 총 10기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정성 평가와 민주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무리한 수명 연장은 방사능 오염과 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며, 그 간 많은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과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위험에 대한 비용을 전가할 뿐입니다.³⁾

정의의 하느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위험하고 불평등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중단 되도록 저희 안에 생명을 선택하는 결단의 힘을 모아 주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3) <https://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4>

제8차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핵발전 비정규 노동자들>

핵발전 분야 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현장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방사능 피폭이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 작업은 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곳에서 안전도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외주화’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⁴⁾

선하신 하느님,
소외와 차별이 없는 핵발전소
노동의 정상화로 모든 이의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참된 발전을
가져오게 하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4) <https://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09>

제9차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탈핵과 탈송전탑>

정부는 2000년 제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고자 밀양에 송전탑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5년 시작된 송전탑 반대는 2014년 6월 11일 행정 대집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국가가 밀어붙인 초고압 송전탑 공사로 밀양 지역의 산림은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는 분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제 2의 밀양이 봉화, 평창, 횡성, 홍천 등지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고압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에게는 정의로운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창조주 하느님,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 대신 연대와 정의가 흐르는 탈핵, 탈송전탑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게 하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0차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핵발전소 인접 지역의 분열과 갈등>

핵발전소 지역은 유치와 건설, 운영 과정 안에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오랜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에게 맞서게 하는 핵에너지는 인간의 오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 쓰는 핵에너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자비의 하느님,

불의에 맞서 싸우며 갈림 없는 평화와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주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1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핵발전과 비민주성>

핵발전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밀주의, 전문가주의, 관료주의, 성장주의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미래 세대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핵발전 정책이 핵산업 복합체의 주도 속에서 은밀히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됩니다. 핵발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민주적일 수 없습니다.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면 위험성이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87-89P참조)

일치의 하느님,

진실을 왜곡하고 불의를 구조화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핵발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임을 일깨워 주시고 공동선에 투신할 수 있는 연대성의 구조로 전환되도록 저희 안에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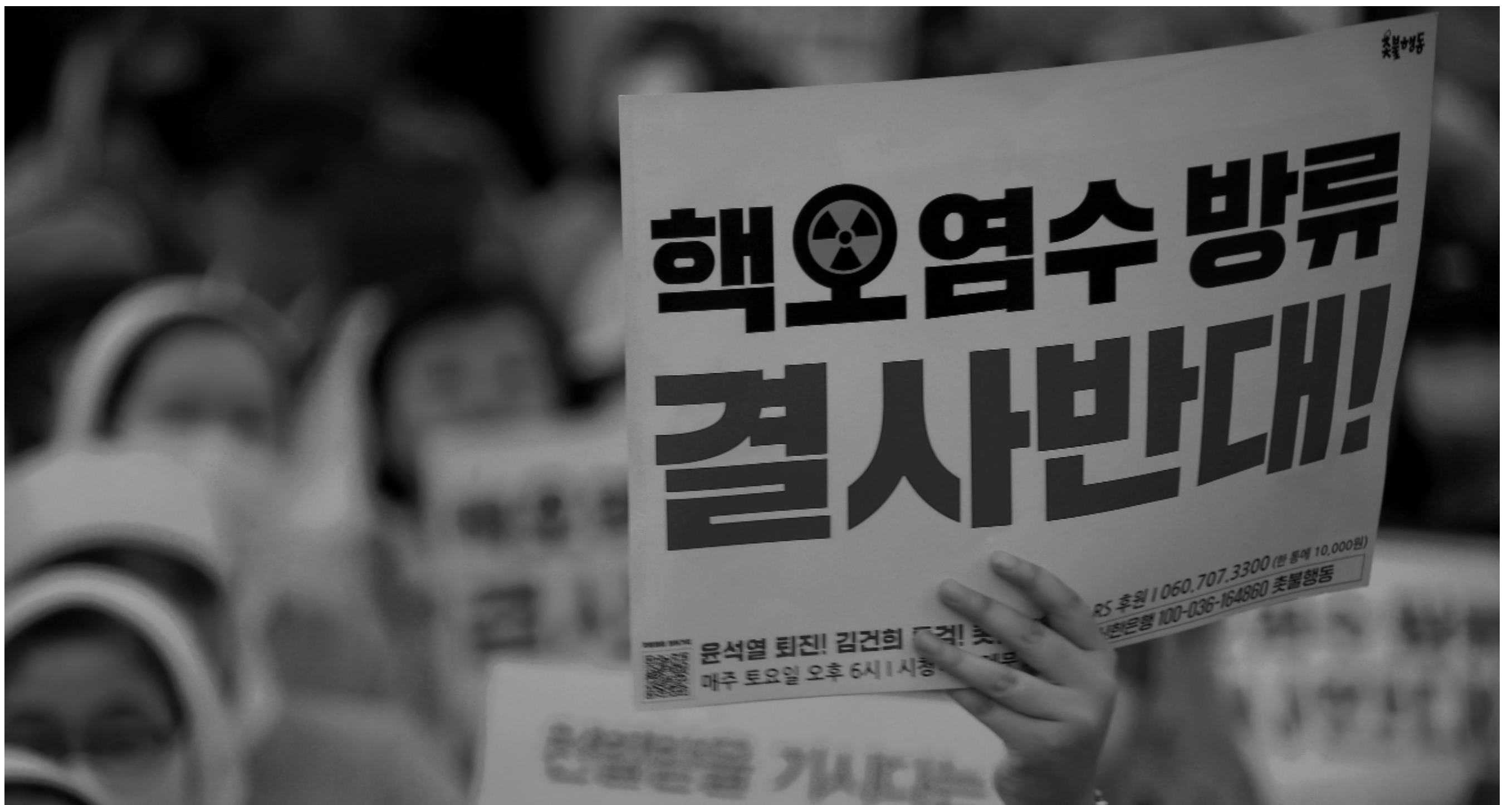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후쿠시마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으로 뒤범벅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바다에 인류 공동체의 동의 없이 핵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며,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하느님,

저희가 공동의 집 지구에서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온 생명공동체를 위해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지키고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3차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은 지속·확대의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기후변화 대응에 역효과를 낳습니다. 건설기간이 길고, 비용도 점점 비싸지며 발전과정 외 전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합니다.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핵발전과 관련된 전력 시스템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에 대응을 위해 이미 전 세계는 빠르게 재생 에너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대량 전력을 생산하며 특성상 쉽게 끄고 켤 수 없기에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하느님,

핵발전이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태양과 바람 에너지를 선택하는 책임있는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정의의 실현에 앞장서게 하소서.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14차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핵발전과 평화>

핵발전은 핵무기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도 핵폭탄처럼 폭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절대 위험 시설입니다. 핵발전은 또한 핵폭탄의 원료 물질을 낳기에 핵무기 보유를 꿈꾸는 국가는 핵발전 산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핵과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98-101P참조)

평화의 하느님,

핵기술은 가공할만한 파괴력으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 자체를 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향해 공동선을 지켜나가며, 저희가 정의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영광송]



마침기도

평화의 주님,



저희가 하느님 생명의 빛을 따라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탈핵의 길을
굳건히 걸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주시고,
공동선을 향해 연대와 정의를 품은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 주모경

“주님 ! 저희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분별하고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게 도와주소서“

(마태 16.3참조: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2P)